

눈높이에 맞춘 자유방임적인 책읽기

책으로 쓰는 자서전 — 2

김병익 | 문학평론가

“초등학교 시절, 내가 읽은 것 가운데 중고등학생급의 책이 많았지만, 나 자신은 그런 줄 모르고 평범한 어린이의 눈높이로 그런 책들을 마구잡이로 읽고 즐겼다. 훗날 내가 자유방임적 독서관을 갖게 된 것은 이 때의 분방한 독서경험 때문이다. 어머니는 내가 틈만 나면 구석에서 책을 보고 있다고 무척 대견해하셨지만, 나 자신은 책이란 일상의 놀이처럼 으레 그렇게 보는 것이지 일삼아서 하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초등학교 시절의 내가 가지고 놀 수 있는 것이 책밖에 없었고 내 또래가 읽을 만한 동화책이나 잡지가 많지 않아 형의 책을 많이 들춰보게 됐다는 것은 앞서 말했지만, 그때 내가 읽고 봐 지금껏 기억되는 몇 권의 ‘추억 속의 책’ 이야기는 좀더 계속해야겠다. 무심히 본 그것들이 6·25 후 부실한 교육을 받아야 했던 우리 또래의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내 공부에 좋은 과외수업이 됐을 뿐만 아니라, 50년이 지난 이제까지도 아름답고 유쾌한 기억으로 남아 때때로 내 안을 굽적거리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때의 내 회고에서 참 다행스럽게 여겨지는 것은 내가 읽은 것들이 중고등학생급의 책이 많았지만, 나 자신은 그런 줄 모르고 평범한 초등학교의 눈높이로 읽고 즐겼다는 점이다.

지도책 보며 한자와 알파벳 익혀

필시 형이 사용하던 것이겠지만 초등학교 2~3학년 때 내가 가장 자주 들여다보던 것은 일제시대 때 나온 세계지도였다. ‘세계’ 지도라면서 왜 일본과 우리나라를 뺀지 궁금했지만 어떻게 그 지도책은 5대양 6대주를 아주 좋은 색도 인쇄로 꽤 두툼하고 자세한, 보면 볼수록 재미있고 신기한 그림책이었다. 내가 알지도 못하는 나라

와 도시들, 산과 강의 이름과 생김새들을 줄곧 따라다니며 내 동네처럼 익혔고 드디어는 지도를 보지 않고도 세계전도를 그릴 수 있었다. 지도책 부록의 각종 통계에는 나라와 도시의 크기며 인구, 각종 자원 생산량이며가 상당히 많고도 자세하게 도표로 나와 있어 웬만한 학생 수준의 인문지리는 이때 통달했을 것이다. 우리나라 지도도 꽤 열심히 봐 시, 도, 군과 산, 강 등의 위치와 이름을 그때 모두 기억했다. 이 지도 보기도 모자라 시립도서관에 가서 두툼한 일본어 지리지를 찾아 내가 살고 있는 ‘대전’ 항목을 발견하고 반가워하던 기억이 새롭다.

그런데 이 지도 보기가 내게 의외의 큰 소득이 됐다는 것은 후에 깨달았다. 중학생 시절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지리 시험을 잘 치를 수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지도들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한자와 알파벳을 배웠던 것이다. 일본 지리책은 지명을 일본의 가타카나로 표기하고 그 밑에 작은 글씨로 한자 또는 알파벳을 병기했다. 그러니까 가타카나 표기를 통해 저절로 영자를 거의 익혔던 것이고(‘거의’라고 한 것은 대문자 소문자를 구별 못했기 때문이다) 신문도

대충 읽을 수 있을 만큼 한자를 많이 알게 된 것이다. 4학년 땐가 중학교 축구 선수였던 큰형님과 영어 단어 찾기 내기를 했던 것도, 그리고 그 즈음 내 이름이나 친구들의 이름을 영어로 표기할 수 있었던 것도, 그리고 옥편을 가지고 한자 찾아내는 재미를 즐긴 것도, 그리고 엉뚱하지만 우리나라 성씨 100여개를 한자로 외어 쓸 수 있었던 것도 이 지리책을 재미있게 들여다본 덕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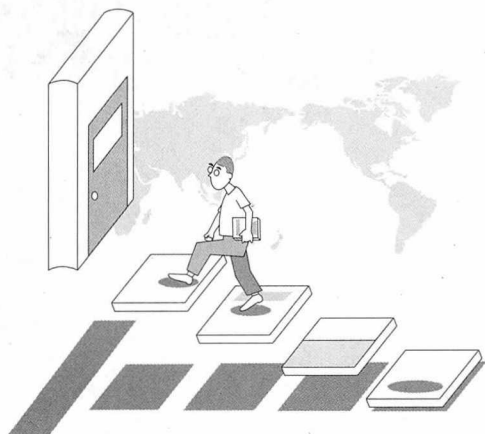
성적향상에도 도움 준 신명균과 김성철의 책 또 하나 내가 열심히 자주 본 책은 시조 책이었다. 저자가 ‘신’ 씨라는 것만 기억돼 이번에 찾아보니 그것이 국문학자인 신명균(申明均)의 《시조전집》이 아니었던가 싶다. 4.5학년 시절이었던가, 틈만 나면 본 이 책은 그저 시조만 모은 것이 아니라, 어려운 뜻풀이, 대의, 시조의 창작 경위, 작가 소개가 자세하게 붙어 있었는데, 특히 작가 소개는 일화를 중심으로 짧은 전기처럼 서술돼 있었다. 그 소개에서 ‘자’ ‘호’ ‘시호’ 등의 단어들을 봤고, 가령 성삼문을 소개하면서 그가 태어날 때 “나왔느냐”고 하늘에서(실제는 할아버지였겠지만) 세번 물어왔기에 이름이 ‘삼문’이 됐다는 것 같은 정사와 야담이 뒤섞인 듯한 이야기들이 쉽고도 흥미롭게 서술됐다. 내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국어 공부하는 거의 하지 않고도 그 시험을 잘 치른 것에는 이 책의 덕택이 컸지 싶다.

김성철(金聖七)의 《조선 역사》를 본 것은 5학년 때였을 것이다. 그것도 형의 책이었을 것인데, 그 이름에 쓰인 한자가 유다르다는 것 때문에 저자명은 기억되면서도 정작 그가 어떤 사람인가는 그 후에도 알 수가 없어 궁금해했다. 나는 그 저자가 막연히 혹 월북한 사학자가 아닐까라고 짐작했는데, 창작과비평사에서 나온 그의 《역사앞에서》를 보고 그분이 6·25 중에 우연한 사고로 작고했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참 아쉬워했다. 내가 아쉬워했다고 건방진 말을 쓴 것은, 소년시

절에 마치 이야기책을 읽듯이 《조선 역사》를 두번인가 보고서 한국 역사의 큰 줄기를 알 수 있게 된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그만큼 큰 때문이다. 나는 이 책에서 읽은 역사 이야기를 학교에 같이 오간 친구들에게 해주곤 했는데, 대학 입학 시험의 국사 문제에 답을 쓸 수 있었던 것은 이 책 덕분이 아니었나 싶다. 고3 때의 역사 과목에서 선생님은 고대와 중세를 훌쩍 뛰어넘어 조선조 시대부터 가르쳤는데, 시험문제는 고려시대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분방했던 어린 시절의 독서편력

아마 어른들의 소설로 내가 처음 본 것은 3학년쯤의 방인근 작품이었지 싶다. 누이가 빌려왔음직한 이 책은 중간 제목이 흥미로워 거기서부터 읽기 시작해서 내쳐 다 보고는 처음으로 돌아가 마저 읽었다. 그 책이름은 기억나지 않지만 '장비호'란 탐정을 등장시킨 탐정소설이 아닐까 싶다. 그때부터 많이 읽었지만 집안에서 읽구는 소설책들을 보기 시작했는데, 르블랑을 차명한 탐정 '유블란'을 등장시킨 김내성의 소설들이 특히 재미있었다. 후에 대부분 외국소설을 번안한 것으로 짐작하게 됐지만, 그의 탐미적인 단편 추리소설 중의 몇 대목은 지금껏 기억할 정도로 인상적이었고 장



일러스트레이션 · 최정규

편소설 《마인(魔人)》은 어린 머리에 무척 신비하면서도 무서웠던 것으로 회상된다. 피난갔다가 돌아온 6학년 때 본 그의 《진주탑》은 《몽테크리스토 백작》의 번안으로 내가 읽은 어떤 것보다 흥미진진한 소설인데, 이로 미뤄 그의 번안술은 우리의 어떤 작가보다 뛰어나다는 생각을

나는 후에 갖게 됐다. '함흥차사' 이야기가 들어 있는 김동인의 야담집이며 제목을 잊은 정비석의 장편소설과 박계주의 《순애보》 등 속을 어른 것이라는 생각 없이 그냥 읽어버린 것도 이즈음이었을 것이다.

6학년으로 오른 지 한 달도 안 돼 6·25가 터졌고 우리 가족은 큰누이가 시집가 살고 있는 부산으로 피난갔다. 우리 형제들은 초량의 부산고등학교 뒤 산자락의 한 해군 장교 관사에서 얼마동안 셋방살이를 했는데, 거기서는 부산 앞바다가 훤히 내려다보였다. 밤마다 외국의 배들이 갖가지 색깔의 등불을 켜 휘황한 장면이 연출됐는데, 내게는 이 모습이 참으로 인상적이어서 남들에게는 고되고 비극적인 이 전쟁이 내 개인적인 추억으로는 민망하게도, 아

름다운 불꽃놀이로 기억되곤 한다. 어쨌든 그 시절 초량시장의 난전에서도 책 몇 권을 샀는데, 그중 하나가 양주동이 편한 아마 세계 명문선이었을 것이다. 내가 보기는 어려운 책이었지만 읽히는 대로 읽었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수록된 글의 한 필자인 '김성탄'(金聖嘆)이란 사람이 누굴까 의아해하던 일이다. 내가 아는 한국인 중에는 그런 이름이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큰누이집에서 《애생금(哀生琴)》으로 기억되는 책을 봤는데, 슬픈 문둥이 이야기여서 속이 무척 아팠지만 그 저자가 어떤 사람인지는 지금까지 확인해보지 않았다.

책읽기에서 얻은 책 밖의 지혜

후에 내가 갖게 된 일종의 자유방임적 도서관은 그러니까 내 어린 시절의 이런 분방한 독서 경험 때문에 이뤄진 것이다. 나는, 아이들이 읽는다면 그것이 동화든 성인 도서든 혹은 추리물이나 대중소설이든, 부모가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두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아이들은 제 눈높이로 쉽고 재미있는 것에서 독서를 시작해서 책이란 것과 점점 친숙해지면서 스스로의 이해력과 판단력의 발전에 따라 취사선택할 것이며 그 수준도 그와 더불어 향상돼 갈 것이기 때문이다. 나 자신도 만화와 동화, 어린이 잡지에서 출발해 점차 상급학교 책과 읽기 편한 대중소설로, 그 다음에는 교양도서로, 그리고 이른바 명작으로 그 수준을 따라올려가게 된 것이다.

내게 또 다행스러웠던 것은 그 어른의 책들을 보고 그 옛날의 지방 도시 어린이로는 꽤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지만, 정작 나 자신은 내 독서 수준이 남보다 높았다든가 나이에 비해 많이 알고 있다는 생각은 한번도 한 적이 없다는 점이다. 별다른 학교 공부도 하지 않은 채 우등상장을 타고온 처음 실시된 중학입학 국가고시에 전교 수석을 해서 다른 반 선생님들이 김아무개가 누구냐고 수소문할 정도였지만, 어쨌든 나는 그 나이답게 장난도 많이 치고 생각도 어린 평범한 아이였고, 게다가 형과 누이들을 본으로 한 것이어서 스스로를 남과 유다르게 생각할 이유가 없었다. 어머니는 내가 틈만 나면 구석에서 책을 보고 있다고 무척 대견해하셨지만, 나 자신은 책이란 일상의 놀이처럼 으레 그렇게 보는 것이지 일삼아서 하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이런 나의 어린 책읽기 행위에서 비롯되는 지적인 수줍음은 아마도 책을 통해 내가 얻은 가장 귀중한 책 밖의 지혜일 것이다. ●